

2024 선거연합 정당 관련 제주녹색당 토론회

정당 민주주의와 제주녹색당의 논의 과정

제주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김순애

2023. 3.
대의원대회

2023. 사업 목표

3. 선거 정치는 2024년 총선에 대비한 전당적 토론을 진행하여
총선방침을 확정하되,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지역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연대와
폭넓은 녹색지지층 확보하는 것에 집중함.

2023. 3.
대의원대회

2024년 총선 기본계획(안)에 나온 총선 목표

- ① 기후정의운동의 동력을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녹색당의 존재 가치와 명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당원들의 뜻을 모아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원내 진출을 달성한다.
- ② 녹색당의 원내 진출이 당 외부로는 기후정의운동 및 진보정당 연대를 강화하고, 당 내부로는 녹색당 인지도 증가에 따른 당원 증가와 내부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당의 재정 및 조직 상황을 냉철하게 고려하여, 이상을 놓지 않되 현실성을 잃지 않도록 선거 전략 및 내부 목표를 설정한다

제주녹색당 토론

온라인 참여 가능

녹색당
대인의 숲, 천원의 바닷

제주녹색당 긴급 당원 토론회 제2공항 강행 위기 제주녹색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오후 7시
- 장소: 참여환경연대 자람 카페 (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 온라인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 연락 바랍니다.
(010-3099-7757)

녹색당
대인의 숲, 천원의 바닷

제주녹색당원과 함께하는 설명회 녹색당 공직선거법 & 세계녹색당총회

김찬휘 녹색당 대표

- 일시: 2023년 5월 4일(목), 저녁 6시 30분
- 장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세미나실 (제주시 명신1길 11)

녹색당
대인의 숲, 천원의 바닷

제주녹색당 당원여러분~

임시운영위에 참여해 의견을 나눠주세요

1. 들불축제 속의방법 토론
2. 제주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

- 일시: 2023년 5월 17일(수),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세미나실

녹색당
대인의 숲, 천원의 바닷

강서보궐선거 이후 돌파구를 찾아서

2023.10.19 (목) 오후 8시
Zoom 화상회의

선거 결과를 보고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놓고
녹색당의 돌파구를 찾는 제주녹색당 집담회입니다.
제주녹색당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총선을 위한 제주녹색당 토론회

2023. 7. 29(토)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시 명신1길 11)
오후 1시

치열하고 냉철하며 민주적인 정치토론

비자림로, 다음은?

2024년 1월 3일(수) 오후 6:30
민주노총 제주본부 세미나실
(제주시 명신 1길 11)

비자림로 공사 무효소송 2심 항소 기각,
비자림로 공사를 막기 위해 싸웠던 지난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할까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7월 29일 총선토론회

참석: 강민수, 김상애, 김순애, 김종옥, 김창대, 김혜령, 신은순, 신현정, 양인숙, 안재홍, 이선자, 현성미, 황용운 (15명)

논의주제: 총선목표, 연합정치,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윤퇴진운동 참여

- 마지막 총선 진보진영 블럭 10% 지지, 현재 양극화 상황에서 5% 밑으로 떨어질 것
- 정의당과의 연대에서 우려점(비례 앞 순번 가능한가? 지지율 시너지 효과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는 전략이 추후 행보에 미칠 영향, 정의당의 정파 문화)
- 연합 등 새로운 방법과 시도를 통한 훈련 필요
- 정당 정체성에 대한 당내 치열한 토론과 합의 필요 "반정당의 정당" 해석
- 소수정당들의 힘을 모아 공통비례명부작성을 녹색당이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방법 가능(녹색당의 역량과 리더십이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질문)
- 제3지대로 비례플랫폼 등 뭔가를 하면서 답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한다면 호응하는 이들 있을 것.
- 연합에 필요한 의제: 기후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의제 VS 선명하고 논쟁적인 의제

* 기후중심의 비례플랫폼을 운동단체와 진보정당에 녹색당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지만 다양한 우려와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 존재

2023. 8.
제주운영위

1) 2024 총선을 위한 제주녹색당 토론회 후속 논의

② 2024 총선 선거연합

녹색당이 기후정의 관련 단체와 차별철폐 의제 관련 단체들에
‘비례플랫폼’ 형식의 연합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이후 진보정당
등으로 확산되도록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운영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국위 회의 참가

10월 19일 총선토론회

참석: 강민수, 김순애, 김종옥, 다겸, 박은서, 부순정, 신현정, 양인숙, 안재홍, 이건웅, 이선자, 정근효, 최희정, 현성미, 호수, 황용운(16명)

논의주제: 10월 22일 전국위 안건인 총선 방침 및 목표

- 녹색정치의 정체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토론 필요
- 기후정치를 제안하고 중재하려는 녹색당의 시도가 계속 필요
- 더 진보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녹색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더 진보적인 아젠다 찾아야 함
- 이슈와 운동 중심의 정당 VS 현실 정치를 하는 정당 사이의 고민, 하지만 다양한 시도 필요

*총선 집행부에 결정 위임하고 선본의 자율성 존중(여러 선거연합 방식에 대한 선택은 선본에 위임)

*당원들의 판단과 입장이 다양하기에 우려되는 지점들을 전국위에 전달

*총선 목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대토론회 역시 1회로 부족. 세부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일은 선본에 위임

*‘기후정치’와 함께 시민에게 접근 가능한 현실 정치의 목표가 추가, ‘기후정치’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과 홍보가 필요.

2023. 10.22
전국위원회

녹색당 2024 총선방침과 목표

- 기후정치 실현을 위해 기후녹색운동과의 선거연대에 기반하여 전략 지역구에 출마한다.
- 긴급한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신설 또는 흡수합당이 아닌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 특정 정당에 대한 판단은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선거연합정당 참여의 최종 결정은 당원 총투표로 진행한다.

2023. 11.26
전국위원회

녹색당 2024 총선방침과 목표

-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자본주의 성장중심주의가 낳은 삶의 위기를 해결하고 거대 양당정치와 결별하는 녹색 대안 정치를 일구기 위해,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하여 기후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기후정치세력화와 거대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 2024년 1월,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 앞서 '기후정치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사회 비전을 담은 '기후정치선언문'(가칭)과 당의 정책적, 정치적 원칙을 담은 '기후정치강령'(가칭)을 수립한다.

충북녹색당 입장문

[입장문]

**충북녹색당은 녹색당-정의당
양당 간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에
반대하며, 당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한다**

2023. 12. 14
충북녹색당 운영위원회

정의당과 단독으로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에 대한 우려는 이미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양당 간의 선거연합은 '진보정당 간의 연대'보다 '두 정당의 지향과 정체성 또는 이해관계'가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 간 대연합 계획에 관한 당내 논의를 가로막는다. 또한 정의당에 대한 당내 다양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녹색당이 정의당과만 단독으로 연합해야하는 근거를 녹색당은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보수 양당이 아니니 문제 없다'는 입장은 정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충북녹색당은 이번 2024 총선에서 녹색당의 선거연합시도가 정의당-녹색당 양당 간의 선거연합정당에 그칠 경우 선거연합시도를 중단하겠다는 당의 명확한 입장과 그 대책이 포함된 총선방침을 요구한다.

2023. 12.
2024. 1
전국위원회

-12.16 총선 실행계획 안 및 전략지역구, 선거연합정당 관련 당원 총투표 일정 승인

-1.7 당원총투표 문안 승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당이 기후정치 세력화, 거대양당제 타파 등 당의 강령과 선거 방침 하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기후·녹색운동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4 총선대책위원회와 전국위원회는 선거연합정당 구성 대상에 대한 판단 및 선거연합정당의 구체적 내용과 녹색당 선거방침 부합여부를 함께 결정하며,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으로 당선된 녹색당 추천 국회의원은 선거 이후 녹색당으로 복귀합니다.)

당원발의 안건 부결: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과 기후정치세력화를 위한 총선연합정당이 사실상 정의당과의 선거용 양당 통합으로 협소화된 현실에서 현재 추진되는 총선연합정당 논의를 중단한다."

제주녹색당 민주주의

당원토론회를 통한 전체적인 의견 수렴

- 당원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운영위에서 정리
- 전국위에서 의결 과정에 참여

*거의 월 1회 열리는 전국위 결정 과정에 이러한 논의 과정을 모두 밟기는 어려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운영위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

공동운영위원장 판단에 따른 전국위 의사 결정 참여 등이 이어짐

(녹색당 민주주의에서 **당원의 직접 참여, 운영위에 위임된 결정 권한, 운영위원장에 위임된 결정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각자 다른 상을 가지고 있음**)

녹색당의 현실 상황(**실무 담당할 전국 사무처, 제주사무처의 열악한 구조**)에서

녹색당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민주주의 방법에 대한 고민과 대안 필요